

검찰 출석 이재명 “없는 죄 조작...尹정권 심판 받을 것”

“단 한 편의 사익도 취한 바 없어...소환조사, 백 번이라도 받겠다”

성남FC·대장동 이어 네번째 조사...진술서 내고 답변 같음할 듯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네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군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내고 대부분의 답변을 같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조사처럼 이 대표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거부할 경우, 1~2시간 가량 조서열람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량이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정략을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게 한 것으로 본다. 김 전 대표 등이 가져간 개발 이익 일부를 이 대표가 공유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상거리에 서 지지자들 앞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

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십

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편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까지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백현동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가 확인됐고, 수사 의뢰 후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수사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치권은 검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수사를 바탕으로 ‘8월9초’(8월말 9월초)에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지형을 뒤엎을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신병 문제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총선 공천 및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탄압을 국민은 말 없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민주당은 더욱 결집, 국민과 함께 야만의 시대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덕수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해 억지력 보장”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적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폭염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 심사...이르면 내주 결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을 소위에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했다.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내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30분 가량 살펴본 뒤 약 1시간 30분간 김 의원과 문답하고 최종 소명을 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 지원 요청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면담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 차관에게 여수시 죽림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유입되어 여수시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

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남주경기장, 마마경 기장 등 여수시 내 다수의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여수 향일암 일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계승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여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전남의 대표 도시로, 해양문화관광사업의 성장과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박광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 많아”

“검찰, 수사 아닌 정치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서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외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에 대해 “잠으로 잔인한 시대.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

다”면서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 혁신안이 논의된 전남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린다”며 “가치와 비전과 정책의 쇄신으로 민주당의 역량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참여 국가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비대면 화상회의를 비롯해서 원탁토론과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